



아버지학교가 한 해 사역을 논의하는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자”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연례 컨퍼런스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가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 해 사역을 논의하는 연례 컨퍼런스를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에서 열었다. 미주 전역의 리더십 100여 명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2018년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버지학교 세계본부 이사장인 김성목 이사장, 멕시코 현지 목회자 부부와 성낙서 한인 선교사 부부, 콜롬비아 현지 목회자 7명과 라틴 두란노 대표 김주태 선교사, 니카라과 현지 목회자와 정진모 선교사 그리고 유럽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리 목사와 정광섭

선교사가 참여하여 아버지학교가 가정사역의 장을 넘어 선교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 받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멕시코, 콜롬비아, 니카라과, 우크라이나,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캐나다 등의 해외 사역 보고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과거 사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중 2018년 각 지부에서 개설될 다양한 사역 소개도 있었다.

미주 지도목사인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는 “차세대 리더들은 미주 아버지학교 1세대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희생적 성감

을 바탕으로 아버지학교는 가정회복의 도구로 더욱 크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학교 운동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비전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도 참여해 남미 국가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손잡고 원을 그리며 찬양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장식했다.



세미나에서 피종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남가주목사회 삼일절 기념 행사

목회자 세미나와 성회, 기념예배 등 다양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 신 목사)가 삼일절을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피종진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3월 2일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으며 3일 한인-히스패닉 연합 성회, 4일 삼일절 기념연합예배를 드렸다. 이어 5일부터 7일까지는 인기배우 신애라 집사 간증 집회를 겸한 사모힐링캠프를 레이크아로우헤드에서 열었다.

한편, LA 한인타운 로텍스호텔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피 목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그는 “영어에서 설교자는 ‘스피커’라고도 부른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한다. 마이크에 대고 한 말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고장난 스피커는 버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설교시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동정을 더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설교의 독”이라 경고하며 “기도할 때만 성령

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했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한인-히스패닉 성회에서는 여러 히스패닉 강사들과 함께 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해 큰 은혜를 선사했다.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제99주년 삼일절 기념 연합예배는 남가주목사회장 샘 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남가주목사회장부부찬양단과 레위남성합창단이 특송을 불렀다. 설교는 피 목사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슌4:6)”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어 미국가와 애국가를 제창하고 독립선언문이 낭독됐다. 특별히 미국, 대한민국, 한인 커뮤니티와 2세들, 남가주 교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 모든 행사는 샘 신 목사의 인도로 만세 삼창을 하며 끝났다. 신 목사는 “이번 예배를 통해 삼일절정신이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에까지 공감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세금 보고 무료 강의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를 개최된다.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 도서관 GL2 강의실에

서 오는 3월 16일(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강사는 그레이스미션대학 행정처장이며 교회행정 및 IT 전문가인 제임스 구 교수다.

이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되었으

며 비영리 단체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각종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강의 자료는 당일 무료로 배부된다. 전화 문의) 714-393-4595 (주소)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미주장신 인문학 포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제7차 기독교인문학 목요 포럼이 오는 3월 22일, 저녁 7시 “선교와 신학교”라는 주제 아래 열린다. 강사는 전총장 서정은 교수다. 미주장신은 남가주 지역 교계와 사회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을 찾기 위해 정례적으로 인문학 목요 포럼을 열고 있다. 전화 문의) 562-926-1023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여러분의 도우미
카카오 렌트카가 있습니다.
 급하게 차가 필요하신가요?
 KOREA TOWN
877-251-4489
CACAO RENTAL CAR
 286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크레딧 카드 없는 분
- 국제운전면허증
- 타운 내 공항 픽업
- 장기 렌트카
- 보험청구 렌트카
- \$18/일, \$350/월부터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침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인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림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행운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이 시대의 적은 무신론자들 아니라...”

ANC온누리교회 창립 22주년 강영안 교수 특별강좌



강영안 교수가 강의하는 모습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담임목사)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강영안 교수(서강대 명예교수, 미 칼빈신학교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김태형 담임목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지고 세상을 회복하고 살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3일 토요일 아침과 주일 1, 2, 3부 집회를 통해서 ‘사도신경과 오늘의 시대정신’에 관해 말씀을 전한 강 교수는 “사도신경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도전은 반기독교 정서와 무신론, 상대주의(종교다원주의), 소비주의와 세속주의”라고 전했다.

그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무신론은 지식인들의 용감성을 보

이는 정도였지만, 지금의 무신론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닌 무신론자들을 규합해 세계 시민운동으로 확대되어 조직화 되었다”고 했다. 또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이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인들은 벤전 3장 15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으신 분임을 과학적인 방법이나 지성으로도 이해한다”면서 “교회 안에 지성주의가 우상이 되어서 안 되나 지성 또한 복음을 변증하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변증하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소비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해서도 “오늘의 교회 속에서도 기업의 논리로 고객 중심의 입맛에 맞추는 ‘소비주의’가 들어와 있다”면서 “소비를 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마치 구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패단에 삶이 매이고 종살이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무서운 적이다”고 말했다.

강의 후 질문들도 이어졌다.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강 교수는 “한국교회는 6.25 이후 ‘예수 믿고 천국 가지’는 내세주의로 바뀌었다. 가난을 모르는 차세대들에게는 복 받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SNS로 연결된 그들의 삶 속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사랑이다. 만남은 많지만 진정한 나눔과 치유, 회복이 없는, 사랑이 결핍된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전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기쁜우리교회 성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삼일절을 기념하고 있다.

소녀상 앞에서 삼일절 기념식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가 올해도 교회 자체적으로 삼일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쁜우리교회는 교회 창립된 직후인 지난해 삼일절에도 이런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2월 25일 주일예배 후 성도들은 교회 인근에 있는 글렌데일 소녀상

을 방문해 이곳에서 기념식을 했다. 김경진 목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이어졌고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다. 이 선언서는 다음세대들을 위해 영어로 번역됐다.



남가주 한인들이 미주평안교회에서故 빌리 그레함 목사 추모예배를 드렸다. 사진은 추모 메시지를 전하는 박희민 목사.

“당신은 겸손하고 진실한 전도자”

남가주 한인들 故 빌리 그레함 목사 추모예배

남가주 지역 한인들이 故 빌리 그레함 목사를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렸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이 추모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고인이 세계 복음화에 끼친 영향력을 회고했다. 26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에는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한기형 목사(성시화 상임회장)가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임승진 목사(미주평안교회)가 기도하고 송정명 목사(대표회장)가 환영인사를 전했다. 고인의 약력은 류종길 목사(미성대 총장)가 소개했다.

11:4)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박목사는 고인에 대해 “역동적 복음의 설교자”라고 칭하며 “그는 겸손하고 진실하며 기도하는 목회자였다. 또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근 목사(미성대 명예총장), 박성근 목사(로스앤젤스 한인 침례교회), 민종기 목사(충현선교회)가 각각 추모사를 전했다. 추모사 사이에 노형건 선교사(글로벌 메시아선교회)가 추모가를 부르는 시간도 있었다.

이어서 이성우 목사(상임본부장)가 광고하고 샘 신 목사(남가주목사회장)가 축도했다.

설교를 겸한 추모 메시지는 박희민 목사(국제총재)가 “충성된 종(히

26:18)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박목사는 고인에 대해 “역동적 복음의 설교자”라고 칭하며 “그는 겸손하고 진실하며 기도하는 목회자였다. 또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계 교회 여성들과 함께 수리남 위해 기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가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렸다.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최순자 회장)가 지난 3월 3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렸다.

올해로 131년을 맞이한 세계기도일은 1887년 메리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한 나라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읽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모아 그 나

라로 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수리남 여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주제로 기도문을 작성했다.

예배는 최미란 사모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최순자 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교회 여성들이 수리남 여성들의 기도문을 낭독하며 기도했다. 기도 중간 중간에 CTS여성합창단, LA여성선교합창단, 이화여대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신여고 동문 코러스, 목사장로부부합창단 등이 찬양을 부르는 특별한 시간도 있었다. 예배 설교는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목사가 전했다며 축도는 엄규서 목사가 했다.

최순자 회장은 “전 세계 여성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담임목사: 최 혁

주안'에교회 ICC

몬트레이팍채플

입당 감사 예배

2018년 3월 18일(주일) 오후 3시 30분

주소: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 전화: (323) 837-09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1부 8:00am . 2부 10:00am
 수요일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 토 6am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 363-5887

몬트레이팍채플 M.P.Chapel
 주일예배 1부 9:30am . 2부 11:30am
 금요일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 토 6am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WEB: in-christicc.org / E-mail: iccc.office1@gmail.com

Exit: 6B Garfield Ave. & Wilcox Ave.



마크 레버튼 풀러신학교 총장과 김창환 원장

풀러 코리안센터 “한국교회와 깊은 관계 맺길 기대”

한국어 프로그램 활성화 및 개발, 연구 출판 등 사역 비전

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가 26일 개원했다. 풀러 내의 3개 대학원 가운데 신학대학원과 선교학대학원 내에 있던 한국어 학위 과정들을 코리안센터라는 기관 아래 행정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신학대학원은 김세운 교수가 중심이 되어 1995년부터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했고 선교학대학원은 박기호 교수가 중심이 되어 1996년 한국학부를 시작했으며 이 두 과정은 그동안 1천여 명이 넘는 한인 동문들을 배출했다. 코리안센터 내의 한국어 과정은 이 두 대학원에서 진행되던 여러 과정들을 사실상 통합해서 5개 과정으로 재편했다. 목회학 박사(D.Min.), 선교 목회학 박사(D.Min. in Global Ministries), 선교학 박사(D.Miss.), 선교 문학 석사(M.A. in Intercultural Studies), 선교 신학 석사(Th.M. in Intercultural Studies) 과정이다. 이 학위 과정들은 1차적으로 관련 분야의 각 대학원에 소속돼 있지만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코리안센터가 행정과 학사 운영을 맡게 되는 구조다. 즉, 목회학 박사 과정은 신학대학원에 속해 있고 나머지 과정은 선교학대학원에 속해 있지만, 학생의 입학이나 학사 및 행정, 한인 관련 행사는 코리안센터에서 관장하는 식이다.

26일 개원식에 직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창환 코리안센터 원장은 “현 한국어 프로그램들의 활성화 및 재정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한

인 학생들과 동문들에 대한 지원, 한국 신학과 선교학에 대한 연구와 출판, 한인교회와의 협력”을 주요 사역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어로 기독교 교육학, 상담학, 영성학 등 다양한 학위 과정을 준비 중이며 한인교회 평신도들을 위한 신학 강좌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안센터에서는 8명의 교수, 3명의 어드바이저, 행정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풀러의 김세운 교수, 박기호 교수, 안건상 교수, 조의완 교수, 엄예선 교수, 조은아 교수, 김에녹 교수, 신용길 교수 등이 이곳에 속해 있으며 현재 이 과정에 속하게 되는 한인 등록생은 7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두 한국어 과정을 통합하고 코리안센터가 정식 출범하기까지 한인들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 김 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은 있었겠지만, 학교 측이 한인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임의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리안센터를 통해 입학과 여러 행정 면에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또 코리안센터가 학교로부터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간담회에는 마크 레버튼 총장이 직접 참석했다. 레버튼 총장은 “풀러는 학교 구성원들의 70여개 출신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풀러가 한국교회와 특

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김창환 원장과 함께 코리안센터를 통해 큰 도약을 시도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는 가운데, 풀러가 한국교회와 협력하면서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고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기자간담회 직후인 오후 2시부터는 개원식이 진행됐다. 개원식에는 풀러의 여러 다민족 교직원과 학생들, 한인 동문 및 목회자들이 참석해 코리안센터의 시작을 축하하고 축복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코리안센터 초대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분석가로 일하다 소명을 받았다. 한국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마치고 한국외향선교회와 한국 월드컨선(World Concern)을 섬기며 외향선교회 선교사훈련원장, 월드컨선 한국 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풀러신학교에서 신학 석사(Th.M.) 학위를 마친 후,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철학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캠브리지대학교, 인도 유니온성경신학교 등에서 가르치다 요크세인트존대학교에서 12년간 공공신학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다양한 연구와 저술을 통해 공공신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로 꼽히고 있다. 김준형 기자



허봉량 선교사와 김광석 총회장. 김 총회장이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총회장 직까지 감당한 데에는 어머니의 든든한 기도가 있었다.

60년간 전 세계에 복음 전한 여종

허봉량 선교사 인터뷰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듯했다. 아들을 보니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간다는 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어머니를 보니 아들이 어떤 사람일지 짐작이 간다는 말일 수도 있겠다.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총회장인 김광석 목사(라운드락장교회, 텍사스)의 어머니 허봉량 선교사는 아직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1938년생인 허 선교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부흥사로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결혼 전이던 22살, 중병으로 인해 생사를 오고 갔지만, 3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치유됐다. 그때 죄를 태우는 듯한 송장 타는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 후로 신학을 공부하고, 지난 60년 동안 1만여 교회와 교도소, 선교지, 고아원, 양로원, 기도원, 기치촌 등에서 사역했다. 1980년 이민 후에는 남가주 엘시노에서 헬몬산 기도원을 15년간 섬겼다. 남편인 허 김일국 목사는 헬몬산 기도원장을 맡아 헌신했고 지난 2007년 77세로 천국을 갔다.

허 선교사는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미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한국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 여성 부흥사로 족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

그는 60년간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을 ‘긍정적 생각’ 덕분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고령에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몸이 안 좋을

때에는 ‘하나님이 낮게 해 주신다’고 믿고, 혹은 좀 오래 아프면 ‘죽으면 천국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겸손하다. 신학을 공부한 후에도 끝내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기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일 한 가지가 바로 2년 전 위클리프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일이다. 자신은 학위수여일 당일애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미리 알면 반드시 거절할 것을 안 김광석 목사가 학위수여일 새벽예배를 마친 후에야 어머니께 말했다고 한다.

허 선교사는 아들 김광석 목사에 대해서는 “성격이 원만하고 밝으며 겸손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소탈하다”고 칭찬했다. 또 “밤을 새가며 열정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실한 목회자라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 한 번 속을 썩인 일도 있었다. 김 목사가 교단 총회장이 될 때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요. 교회에 소홀할 수도 있고 명예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라며 말끝을 흐린다. 그러나 김 목사의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허 선교사가 우려했던 일은 기우로만 그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허 선교사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며 “미국에 오래 살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기 쉽지만 순교의 피로 세워진 조국을 잊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당부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한달 해결을 한 달에 납에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ñ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 (949) 329-8222, (949) 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6/12-6/17 9:00 AM-4:00 PM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오렌지 성경교회 유치부 & 유년부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5>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을 다녀온 추억 (2)

블랙마운틴에서 가까운 산자락에 빌리 그레함 센터가 있다. 산 전체를 매입해서 그 안에 교육센터, 예배실, 숙소, 기념관, 휴식공간 등 전천후 훈련과 수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참 아름답게 갖추어 놓은 곳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기념관은 빌리 그레함의 생애와 기록,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그 기념관을 들어서면 전면에 아주 큰 사진이 세워져 있다. 그 사진이 1973년 한국 여의도 전도 집회 장면이다. 1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 흠바다에 앉아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 되어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 하며 “반드시 이 한국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셨다 한다.

다. 숙소에서 여러 방문객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1년에 1주나 2주간 정하여 그 센터에 와서 수양하며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많았다. 물론 모두 자비량이었다.

산길을 따라 산책로를 가는데 곳곳의 기도하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이 보였다. 교육센터에서 연일 방문객들을 위해 세계선교 동향과 소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고 청소년들이 수양회를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등 영적 생동감이 블랙마운틴 산 전체에 깃들여 있었다.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는 천국으로 가셨다. 필자는 한 시대에 그분과 같이 살았던 것에 감사하다. 그분의 집회에 한 참여자가 되고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 감사하다. 또한, 그분이 남기고 간 영적 유산들을 갖고 소망 속에 살 수 있음에 더한 감사하다.

이 글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맺겠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믿음의 지도자를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빌리 그레함보다 감절의 영감을 갖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다시 보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어느 세일즈맨의 사랑의 세일즈

30여년 전 일입니다. 인천 변두리 판자촌에서 올망졸망한 세 딸을 키우던 30대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제법 능력 있는 세일즈맨이어서 월 수입이 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부자로 살 수는 없었지만, 그런대로 여유롭게 살림을 꾸릴만한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맨 아내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갈 곳이 없었던 고아, 알코올 중독자, 시각장애인, 자식들이 버린 노인들 등 20여 명과 더불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객식구들을 먹고 입히다 보니 늘 쪼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그뿐만 아닙니다. 방도 가득 찼고, 이미 수입의 한계를 넘었지만,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꾸 데려옵니다. 나날이 식구들이 늘어갑니다. 심지어 일과를 일찍 마친 날에는 인근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돕습니다. 연탄도 사고, 쌀도 사서 보냅니다.

이 세일즈맨은 물건을 파는 일보다 도움 사람을 찾는 일에 더 열을

올립니다. 젊은 세일즈맨은 전기 안마기 세일즈보다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사랑의 세일즈에 더 열을 올립니다. 비좁은 방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다가 단칸방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판자촌에 허름한 집을 짓고 함께 삽니다. 그렇게 함께 사는 집은 ‘즐거운 집’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도무지 즐거울 수 없는 집에서, 도무지 즐거울 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살았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수용자들의 크고 작은 실수(?)들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설을 따로 지어서 그들을 살게 합니다. 여

전히 그들을 돕고 섬깁니다. 가난한 세일즈맨의 가혹한 섬김의 현장을 목격한 어느 신문기자가 세상에 알리기까지 제 살 깎아 나누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함께 하는 사랑밭, 국제 구호 NGO 월드쉐어 등등의 설립자 권태일 목사의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권태일 목사는 어린 시절 우연한 기회에 섬김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대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전기 안마기 세일즈맨이었지만 사랑과 나눔을 세일즈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오대양 육대주에 사랑과 나눔의 세일즈를 합니다. 그는 사랑과 나눔을 세일즈하는 행복한 세일즈맨입니다.

섬김과 나눔이 행복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돕고 섬기는 삶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없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나눔이 축복입니다. 섬김과 나눔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땅끝까지 교회 개척 사명

남가주늘사랑교회(담임 안상희 목사)가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다짐했다. 안상희 목사는 “아직도 믿지 않는 남가주의 한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파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전했다.

창립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정승룡 목사(대전 늘사랑교회)는 ‘주께서 세우가시는 교회(행11:1-20)’라는 설교에서 “안디옥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증거와 함께 그 시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다”면서 “남가주늘사랑교회가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땅끝까지 교회 개척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희 목사의 인도로 열린 이날



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배는 김영환 목사(게이트웨이신학교 교수)의 대표기도, 김승식 목사(SBC 국내선교부 교회개척 담당)의 축사,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의 권면, 민승배 목사(Faith Chapel)의 성경봉독, 안주현 사모의 특송, 정승룡 목사의 설교, 게이트웨이 학생들의 특별 봉헌 찬송, 김기동 목사(소중교회)의 축도

순으로 드러졌다. 남가주늘사랑교회는 SBC(남침례회)에 속한 교회로 대전 늘사랑교회, 밀워키한인침례교회, 메릴랜드한우리교회가 후원하고 있다. 주일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45분, 주소는 1465 W. Orangethrope Ave. Fullerton, CA 92833이다. 전화) 714-525-0191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 하게> 출판

IT 전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재미있는IT(대표 윤승준)에서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 하게’라는 책을 발간했다. 지난 37년간 IT 외길을 걸어온 저자 윤승준 대표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다는 이 책은 사실 발간되기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

았다.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또 GBC미주복음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저자에게 많은 이들이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책을 만드는 모든 비용을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선주문 방식을 통해 100% 총당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알려주며 2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해 다루고 있다. 책은 20달러이며 5권 이상 구입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909-971-7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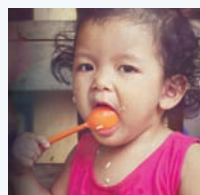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권태일 목사
월드쉐어 설립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회개운동의 기폭제

에스라 10:1-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회개란 다른 곳을 향해 제멋대로 달려 가던 인생이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기대를 앞세워 살았으나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으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태어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의 불행과 비극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권위를 무시하며, 제멋대로 육체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서두르기 위해 자신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생활로 바꿨습니다.

페르시아(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다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면서 에스라는 그 시대에 서기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는 베훈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유식하고 촉망 받는 출세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더 심한 채찍과 시련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사명자의 발로(發露,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숨은 것을 겉으로 드러냄)이기도 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본질적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2.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

B.C. 538년 제1차 포로귀환(스1-6)은 스톱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그들이 2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육에 속한 모습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층 인물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예배하던 찬양대원들, 성전을 지키던 경비들 같이 성전에서 먹고 살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16절을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찌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미신, 우상에 물들어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選民, 하나님이 거룩

한 백성으로 택한 민족이라는 뜻)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 여자인 아스낫과 혼인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낫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낳고 이방인이었지만, 남편인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같이했습니다.

약 400년 후에 있었던 모세도 애굽 공주의 양자로 살면서 많은 애굽 문물을 습득했습니다. 그 후에 광야로 도망쳐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미디안의 사제 이드로의 일곱 딸 가운데 하나님 심보라와 혼인했습니다. 심보라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그 믿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원주민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금기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연유로 이방 여인들을 따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 순종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갖든 회개

하나님이 에스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많은 재물과 함께 1,754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키심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차 귀환으로 먼저 와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들과 왜 혼인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살면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쪽은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멸망하여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셨는데 했으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 받은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은 자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죄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를 애용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죄 값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망적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는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2절에서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어떻게 보내오셨는지, 그 에스라가 왜 그토록 애용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죄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면서 서둘러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나는 술선해서 함께 살던 이방 여인을 그 자식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찾아가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며 의욕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4. 진실성을 인정받는 회개

에스라는 총회를 열어 누구든지 3일 안에 다 모이도록 했고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삼 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스10:8)”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에스라에게 준 특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2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징배하거나 가산을 적몰하거나 옥에 가둘찌니라”고 에스라에게 특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유대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삼 일 안에 모두 모였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스10:10-11)고 명합니다. 임으로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임으로 진정한 회개의 진실성을 인정받아 그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함께 살던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죄악의 끈을 끊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2절에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고 힘써 이 일을 행하기로 답하고 석 달 동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112명 중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삼브대가 저희를 돕더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스라에게 주어진 특권대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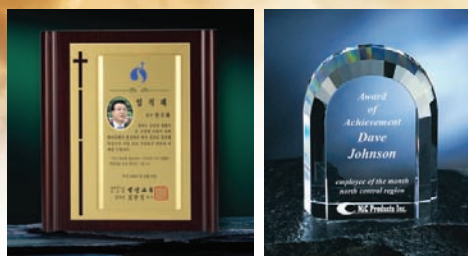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8 부활절 특별할인 행사



EVENT 1 | 감사패(임직패)할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드와 크리스탈재질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65-\$49 / -\$75-\$59

고급 케이스 포함

EVENT 2 | Back Drop

고퀄리티의 배경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새신자 환영 및 각종 행사용 120x96 스탠드포함 \$380-\$299



교회 행사 및 새가족 사진촬영 배경으로 강추! 거치대 무료증정

EVENT 3 | 부활절 배너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다양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65-\$49 / -\$65-\$49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업체를 섬기는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자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	------------------------	------------------------	--------------------	-------------------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삼일절을 맞아 미주 한인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프라미스교회의 새벽 기도 모습.

한인 성도들, 대한민국 위해 일어나자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간절히 기도

삼일절 맞아 한국교회 연합기구들이 주축이 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구국을 외치는 '국가회복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LA와 뉴욕, 뉴저지, 애틀랜타 등 미주의 각 한인교회들도 1일 새벽 각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주제로 간절히 기도했다.

한인교회들은 북핵 개발에 따른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 가운데 있는 한국의 교회들과 국민들을 염려하며 기도했다. 특히 한국 내 개헌 논의와 관련,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할 것과 그리스로도 통일을 이룰 것을 기도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각 한인교회들은 새벽 5시 30분 혹은 5시 45분, 6시 등 각 교회의 새벽기도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거나 설교 후 기도제목을 나누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의 경우 뉴욕과 뉴저지 성전에서 모두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한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허연행 목사는 이날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이민자 중에서도 지도자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면서 "조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크게 애통하며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 개혁운동도 함께 펼쳤다. 작금의 한인 디아스포라 또한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이 됐다"

고 말했다.

허연행 목사는 "북한은 어느새 핵을 개발,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고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는 가운데 선제공격까지도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조국은 북핵 포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마치 역행하는 것처럼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대로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연행 목사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옆드려 기도해야 될 때이다. 조국으로 당장 달려갈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했다"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과 분리하지 않았고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했다. 이 풍망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는 요나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만호 목사는 뉴욕교회 차원에서 회원교회들에게 대한민국의 시국을 두고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목사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삼일절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기도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한국의 교회들과 미주 및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호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순복음안디옥교회는 1일 새벽예배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 합심기도를 드리는 기도했다.



제24차 교회미래연구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고대 상징과 현대 예배 세미나 교회미래연구소, 광계일 박사 초청해

제24차 교회미래연구소(소장 이호우 교수) 학술세미나가 지난 1일(목) 한마음장로교회(담임목사 김기형)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고대 상징과 현대 예배(Ancient Symbols & Modern Worship)'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지아센트럴대학교 교회사 외래교수인 광계일 박사는 '초대교회 예배 사례'와 '신앙고백과 성례, 성경해석 '상징' 드라마, '기도 역할', '현대 예배'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광 박사는 "초대교회 예배에서 신앙고백과 성례는 매우 중요했다. 당시 이단사상이 들끓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때라 신앙과 신학의 일치와 확인이 필요해 신앙고백은 믿는 자들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바른 믿음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신앙고백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광 박사는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떻

게 신앙고백, 성례, 성경을 기독교 고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였을까?" 질문한 후 "예배는 상징을 매개체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것이다. 예배는 장엄한 상징 드라마다. 고대의 '상징'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행하는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현대 예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또한 기도와 찬양, 헌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제25차 학술 세미나는 5월에 열릴 예정이고 6월에는 기도 및 독서 나눔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교회미래연구소에 대한 문의는 총무 권오병 목사 404-455-0334로 하면 된다.

윤수영 기자



LA 지역

LA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새벽-17와버몬트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교회
 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향동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아침예배 오전 8:00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323) 833-9090

씨니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종교특무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주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엘리아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종교특무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어침년부 오후 1:30 오행어 화 오전 11:00-오후 6:00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

서건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침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323) 383-2600, (323) 383-2602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토)
 종교특무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8시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종교특무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쌍(제일한인교회) (스페셜)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종교특무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흠몰, 소신 초 전신의 흠몰, 바른교회관의 흠몰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종교특무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믿음과 애제가 살아있고 최후의 화제가 있어 선교와 전도의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종교특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특무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으로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메소디스트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urch.org

김성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김준식 담임목사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일회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웅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금요회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등동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시(본성전) 매일(월-금) 오전 6:00
 토요일(토)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주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튿날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8:00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2:45
 주일3부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등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n.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평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3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19514 Pinast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2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팀 켈러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 복음 전하는 7가지 방법

팀 켈러 '센터처치 목회자 컨퍼런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던 시대, 기독교인들은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방한 중인 팀 켈러 목사(뉴욕 리디머장로교회 설립, CTC 이사장)가 5일 양재 햇빛회관에서 열린 '센터처치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그 7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팀 켈러 목사는 "포스트모던 이전의 세대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자유를 말할 것이다. 즉,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갈망과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유,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이런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며 "이전의 사람들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독교의 죄를 말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아래 요약한다.

1.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쓰라

언약, 칭의, 구원... 이런 말들은 기독교인에게 익숙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매우 생소하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같은 감정을 느낄 것이고, 결국 복음에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특히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쓰면서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2. 그들도 존경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라

언제나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지만, 그것만 해선 곤란하다.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비록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보다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면 좋다. 나는 미국에서 자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한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교도 철학자와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3.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이해하라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과 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복음의 우월성을 설교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두 같은 죄인일 뿐이다. 어쩌면 더 우월하겠는가?

4.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누구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있기에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당신 이거 믿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

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완전히 맞고 당신은 전부 틀렸다는 태도로 접근해선 안 된다.

5. 신앙은 강요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니다

20년 전에 한국인 목사 세 분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한국에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도대체 이 교회(리디머장로교회)는 어떻게 젊은이들이 모여드는가?" 그들의 질문이었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젊은이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단지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을 뿐이다."

유교의 영향이 강한 아시아 나라의 기독교 가정에만 "당신의 자녀들은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우리 가정이 모두 믿고 있었니까요"라고 말할 것이다. 부모인 우리가 믿었으니 자녀인 너희도 믿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들에게 왜 믿어야 하는지, 어쩌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고, 매우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의 복음이 왜 진리이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 그 분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확고한, 그리고 불변하는 정체성이다.

6.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그 동기에 주목하라

예를 들어, 왜 헌금해야 하는가? 혹은 왜 나누야 하는가? 이에 대해 '그것이 기독교 진리이기 때문'이라거나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선 안 된다. 현대인들에게 돈이란 자만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대상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내 것이라는 자만심,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혹시 내게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 두 가지 감정 때문에 우리는 쉽게 돈을 내어놓을 수 없다. 이들에게 그저 '내어놓으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헌금을 이야기 한다. 그는 충분히 헌금을 강요할 수 있었던 사도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음을, 떨리는 가슴으로 전했다. 헌금의 동기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 우리의 복음 전파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7.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라

여기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한다.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앞선 이가 바리새인이라면, 그 뒤는 기독교인이다. 바리새인은 언제나 불안하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항상 남과 비교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기쁘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없는 은혜에 가슴이 벅차다.

그렇다.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도덕주의자나 그 어떤 종교인을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래서 불안한 이 시대에 평안을 선물해야 한다.



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례식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앤 그레함 라츠 여사 ©BEGA

故 그레함 목사 딸

“아버지 죽음은 삶 만큼이나 중요”

앤 그레함 라츠 여사, 장례식에서 메시지

지난 3월 2일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례식에서 그의 딸인 앤 그레함 라츠 여사가 “하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자신의 삶 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故 그레함 목사의 장례식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있는 빌리그레함 도서관에서 진행됐으며, 유족들과 친지들을 비롯하여 약 2,000명이 참석했다.

이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함 목사의 소천 후, 워싱턴DC에서 2월 28일 열린 추모 행사에서, 그레함 목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칭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의 설교와 기도에도 감동을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다”며 “그레함 목사는 가장 낮은 곳들과 깃잡힌 자들, 비탄에 잠긴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소외당하고 버려진 자들에게 다가가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츠 여사는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삶은 매우 중요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죽음은 하늘의 관점에서 매우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라츠 여사는 “오늘날의 모세와 같이 아버지는 복음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셨다”면서 “아버지의 죽음은 하늘에서 활을 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라츠 여사는 “아버지는 위대한 해방자였다. 그분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고 천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고향으로 부르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여호수아를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예수’이다. 난 이것이 하늘에서 쏘는 화살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열방여! 일어나라 앤!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하면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빌리’(Billy),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도 이 장례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전했다.

김장환 목사는 지난 1973년 당시 약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크루세이드(Crusades)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통역하는 등 생전 고인과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다.

이날 김 목사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신해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생전 그의 메시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등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김 목사는 또 “지금 한국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했다”면서 “바로 당신이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덕분”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빌리 그레함 목사는 내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며 “내 아내인 트루디 사모는 그녀의 나이 12살 때 미시건에서 열린 크루세이드 집회에 참석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들은 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1973년 여의도 크루세이드 집회가 열리는 동안 나와 내 가족들은 매일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약 110만 명이 모였을 때, 내 자녀들이 모두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빌리 그레함 목사가 최근 자신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빌리(김장환), 우리 다시 한 번 한국에서 크루세이드 집회를 열자”고 했다는 김 목사는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7-8절을 인용,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추도사를 마쳤다.

강혜진 기자

워싱턴 주, 대리모 합법화 법안 통과

상업적 용도로 아이들 사고 팔 우려

미국 워싱턴 주에서 상업적인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보호단체들은 법안이 합법화 될 경우, 부모의 의도에 따라 상업적인 용도로 아이들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일 오전, 워싱턴 주 하원의원들은 ‘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을 통과시켰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상원에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3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민주당)는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동인권단체인 ‘템비포어스’(Them Before Us)의 케이티 포우스트 대표는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곧 합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글로벌한 시장을 만들었다고 한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한 것”이라

며 “일단 무엇인가 합법화되고 상업화되고 나면, 우리는 이를 더 갖고 싶어한다. 워싱턴 주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어떤 제약도 없으며, 이를 생계 수단으로 여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약한 여성들이 이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우스트 대표는 “합법화 논쟁에서 대리모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부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어서는 훨씬 급진적이다. 부모의 생물학적인 정보들을 지우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은 부모에 대한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누가 취약한 아이에 대한 전권을 갖는지 결정되도록 만들었다. 당신이 아이와 생물학적인 관계가 있는지, 결혼했는지 싱글인지도 상관이 없다. 만약 당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리모나 생식기술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권리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녀는 “우리는 통계적으로 학대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 아이들을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학생찬양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민경엽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EM*영어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수요기도모임 오후 7시 30분
토요새벽예배 6시 30분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Nachiban Church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562) 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독예배 매일 4부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생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태학생찬양회 오후 2:0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 M (Youth) 오전 11:00

오렌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오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심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3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재지되고 재지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토)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first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m.org

남가주 베델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 1. 찬양 사역자
- 2. 유초등부 전도사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제출기한 : 2018년 3월 31일 까지

Email : info@bethelchurchsoca.org

교회 주소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이력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남가주베델교회

BETHEL CHURCH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언어의 온도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추위를 쉽게 타는 까닭에 온도에 아주 민감한 편입니다.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젊은 때는 몸이 스스로 체온 조절을 잘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몸의 온도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냉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차가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차가워지면 얼음처럼 딱딱해집니다. 반면에 무엇이든 따뜻해지면 어린 아이처럼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차갑고 딱딱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은 대부분 차갑거나 딱딱합니다. 반면에 살아 있는 것이나 생명이 왕성한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시체는 차갑고 딱딱합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들은 따뜻합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하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예수님은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도 하고 악한 것을 쌓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눅 6:45). 마음은 감정의 통로

입니다. 모든 감정을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감정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마음이 따뜻할 때 감정도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게 됩니다. 마음의 온도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언어입니다. 마음과 언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마음의 온도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사용하는 언어가 마음의 온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차가워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일까요? 주로 비판하는 언어, 정죄하는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는

언어, 조롱하는 언어, 멸시하는 언어, 그리고 저주하는 언어들이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반면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언어는 은혜로운 언어, 위로하는 언어, 존중하는 언어, 공감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배려하는 언어, 인정해 주는 언어, 이해해 주는 언어, 용서하는 언어, 장점을 드러내어 주는 언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언어, 그리고 진지하게 사과하는 언어들입니다. 한 마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언어는 우리 상처를 치유합니다. 차가운 마음을 덥혀줍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는 따뜻한 언어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언어만 듣게 되면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차가운 말을 듣고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 따뜻한 언어로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언어로 차가워진 마음을 덥혀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차가워진 마음을 은혜로운 말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할길 원하십니다.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또한 따뜻한 언어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몸을 차갑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따뜻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할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차가운 언어보다 따뜻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이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샬롬!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4)



제이슨 송 교장
새연합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 보면, 무책임한 가르침이 이 시대와 세대에 미친 영향을 늘 접하게 된다.

속제도 마치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부모님 물레 새벽에 일어나 컴퓨터 게임을 하던 학생이 있었다. 하지만 자꾸만 수업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교무실로 불러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꼬리가 밟히고 말았다. 학부모 면담과 지속적인 관찰 끝에 담당교사는 그 학생이 중독에 가까운 정도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당장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게임을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했고, 학생은 안 된다며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피웠다. 학생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란 부모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사실 젊은이들과 십대, 어린이들이 너무나 쉽게 자기 파괴적인 언행에 빠져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다. 심지어 하늘이 내린(?) 경쟁 상대인 형제자매가 없는 이들도 많다. 그들은 '이렇게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도 될까?'라는

질문 한 번 던져 보는 법 없이 매사에 자신의 편리와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욕구를 참고,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경험을 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인간의 본능인 자기중심적(중국에는 자기파괴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욕구만 추구하며 살았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와 공부, 부모, 잔소리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본능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그 학생이 자기파괴적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고 게임을 지우지 못하게 떼를

썼던 것을 생각해 보라. 단언컨대 이는 가르치는 자(이 경우 부모)들이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둔 데에 책임이 있다.

이 세대가 건강을 해치고 스스로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들을 끌어안는 이유는 모두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는 세속적 교육 때문이다.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고, 결국 네 마음에 드는 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전부 거부하고 부숴 버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교육의 산물이며 책임감 없이 가르치는 교육의 결과다.

게임중독에 빠진 학생의 경우, 그 학생의 부모나 교사가 게임중독에 빠지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이가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타일렀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르침의 문제인가? 가르치는 자의 책임은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자는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 모델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르치는 자의 진짜 책임이며 본분이다.

하나님의 전광판을 보십시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어떤 농구팀이 결승에 진출해서 경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선수들은 바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8분 만에 23:7로 형편없이 뒤지고 말았습니다. 슛은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했고, 리바운드는 상대편이 다 가져갔으며, 인터셉트도 그냥 빼앗기곤 했습니다.

이것을 본 코치가 작전타임을 부르고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참으로 흥분됩니다. 이처럼 멋진 경기장에서 우리가 결승을 치르다니요!" 또 다른 선수가 거들었습니다. "난 유니폼이 너무 멋져요. 흰 바탕에 금띠를 두른 것이 아주 돋보이지 않습니까?" 세번째 선수는 관중석의 이모에게 손을 흔들었고, 네번째 선수는 여자친구에게 키스 사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코치가 뭐라고 할까요? "맛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멋

니다. 전광판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속일 수 없는 객관적 계기판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나 점검한 후 최선을 다해 따라 붙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 교회는 세상과의 경기에서 제대로 스코어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소유했던 본질적 능력은 사라지고 세속적 가치가 성공의 기준인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신의 유니폼이나 자랑하고, 우리들끼리 하이 파이브를 외칠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샬롬!

진 경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껏 즐기며 우리의 우아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자구!" 이렇게 말하는 코치가 있을까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리 없습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저 전광판을 보라구. 우리는 지금 결승전을 치르러 나온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 달라붙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될거야!" 우리의 인생 경기도 마찬가지로

새해 맞이 골드 멤버십

정수기 물병 Free

* \$290 월4회 개인 레슨
정회원 한달(무제한 볼사용)



*골프 멤버십 200볼 상당의 정수기 물병 Free



- 물병의 6가지 특징
 - 1. 항산화
 - 2. 풍부한 아연
 - 3. 알카리 밸런스
 - 4. 작은 물 분자 클러스터
 - 5. 염소 제거
 - 6. 음이온
- 건강에 필요한 것 충족

Jacob Choi 최제이콥 T.(310)598-0746

쌍계사 심리벚꽃길

그리운 고향길

합천/산청/하동 5박6일 (기내1박포함)
고국일정 4월5일-4월9일
하동 벚꽃축제 합천 해인사 산청 동의보감촌

\$1,799
항공료, 숙박, 팀 일체 포함
담당: JAY (TEL: 213-842-7079)

코러스투어클럽 Korus Tour Club
Los Angeles TEL: 714-752-6860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명자, 바로 부모입니다”

기독교상담소 부모학교 세미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가는 것일까?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KACC)가 10주 과정의 부모학교 세미나를 열고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이다. 상담소를 방문해 이번 부모학교를 진행 중인 ‘섬김이’들을 만나봤다. 아래는 왕은정 상담원과의 인터뷰 내용.

한인기독교상담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우리는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상담소로서 2014년에 LA 한인타운 지역, 2016년에 OC 부에나팍 지역에 상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상담대학원 디렉터이신 김화자 교수님께서 상담소장으로 계시고, 상담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이 인턴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석 삼아 심리학을 접목하여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세미나, 북클럽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담소를 오픈하면서 상담뿐 아니라 틈틈이 커뮤니티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왔습니다. 2015년에는 LA 카운티의 지원을 받아 매달 무료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그 뒤로도 참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꾸준히 LA와 OC 상담소 두 곳에서 세미나와 북클럽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모학교의 취지와 목적을 알려주세요.

이번 부모학교의 정확한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 당신은 부모입니다- 부모성장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취지 아래, 건강한 자녀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교회라 할 수 있는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첫 주에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 문화와 가치관 이해’라는 주제로 1세인 부모와 1.5세 혹은 2세인 자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부모 대 자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문화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에는 ‘자녀발달의 100문 100답’이라는 주제로 자녀를 키우면서 궁금했던 다양한 질문과 답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쌓인 자녀발달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뒤따르는 다른 세미나들에 반영해, 남은 8번의 세미나를 보다 참여자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세미나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자녀와의 대화- 왕도가 있다’라는 주제로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다루고 넷째 주에는 ‘자녀의 행복시작- 감정코칭’이라는 주제를 통해 감정코칭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실생활에 접목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주에는 ‘아이와 교감하는 사랑의 기술- 자녀의 기질 이해’라는 주제로 자녀의 기질뿐 아니라 부모님의 기질, 다른 형제의 기질을 알아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여섯째 주에는 ‘자유와 책임 바운더리- 훈육원리’라는 주제로 훈육하는 여러 방법 중 바운더리를 통하여 건강한 자녀, 건강한 부모로 거듭나는 원리 및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주에는 ‘Parenting Style 과 의사소통유형’이라는 주제로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을 점검해보고,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영향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덟째 주에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셀프케어’라는 주제로 한 사람으로서의 스트레스뿐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각자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과 그 대책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아홉째 주에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성교육’이라는 주제를 통해 성교육이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주인 열째 주에는 ‘자녀의 Mental Health check-up!’이라는 주제로 현대 시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동발달과 관련된 여러 정신건강 문제들을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녀교육에 필요한 다채로운 내용을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10주의 세미나를 들으신 후 가정에 아름다운 변화가 생길길 기대하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부모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섬김이들. 왼쪽부터 김화자 소장, 김경준 교수(월드미션대), 왕은정 상담원, 고혜란 상담원.

어떤 형식으로 학교가 진행되나요?

세미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강의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자녀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인터넷과 책을 통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오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미나는 워크샵 형태로, 검사지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Q&A를 하는 등 토론과 소그룹 시간이 많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이 학교를 거쳐간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LA 상담소의 경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세미나를 열게 되면서 ‘마니아’분들이 생기셨어요. 계속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는 2년 가까이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유치원 원장님들도 계셨고요. 교회 사모님들이나 리더십으로 섬기고 계신 권사님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OC 상담소의 경우는 주로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니들이 참여하십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하네요. 세미나를 진행해 주면 좋겠다며 원하시는 새로운 주제를 말씀해주시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미나에 참석해보니 내용이 정말 좋아서 교회분들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교회로 직

접 찾아가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채로운 반응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잊지 못하는 반응은 세미나를 통해 실제로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예요. 사실 세미나에서는 많은 분과 함께 연습하고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서도 실제 가정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배운 내용을 사용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세미나를 준비하는 저희가 보람을 느낍니다.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 연습하셨던 것들을 삶에 적용하시면 정말 그 효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부모학교 참가를 고민 중인 분들께 한 말씀 더 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랬고, 우리 역시 자녀를 향한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몰라 못하는 분들, 방법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실천을 하지만 내 뜻대로 잘 안되는 분들, 이 방법이 맞나 확신이 없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유로 건강한 자녀교육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성경에는 ‘보라 자식들

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삼급이로다’(시 127:3)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내가 맡은 기업이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올바른 교육법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부모학교는 3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LA 상담소 (500 Shatto Pl. #601 Los Angeles, 213-738-6930)와 OC 상담소(7342 Orangethorpe Ave. #A103 Buena Park, 657-529-1133)에서 진행 중이다. 등록비는 100달러다.

한편, 이 상담소의 모든 상담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임상심리 면허를 갖춘 김화자 소장(월드미션대 교수, 임상심리학 Ph.D.)의 감독 하에 이뤄지며 석박사 학위나 각종 자격을 갖춘 상담원들이 상담하고 있다. 상담료는 일반 상담소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다양한 형식의 보조가 가능하다.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삶의 고민을 심리학뿐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점 외에 한인들과 가까운 곳에 상담소가 위치해 있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독교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i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통화 1-877-580-2424 사무소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samsungmoving@gmail.com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러케어 안암병원내 샐러케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로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선고교회 내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인다.



선고교회 내부의 복도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4)

주님께서 죄인으로 선고되신 곳

로마 총독의 최후의 선고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친 구주께서는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과 유대군의 합동작전에 사로잡혀 다윗이 암살됨의 반란을 피하여 눈물로 도망갔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신다. 일주일 전에 만왕의 왕으로 환영받으며 입성하신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갈 때, 함께 하였던 제자들은 멀찌감치 물러서서 소리 없이 사라진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감옥에서 한밤을 온통 암흑 속에서 큰 제자의 세 번 부인을 감내하면서 주님은 최후의 길을 향하여 강제로 길을 옮긴다.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심히 기뻐한다.(눅23:8) 혹은 유명한 갈릴리의 이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이적을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이적도 없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신 주님을 보고 급기야는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낸다. 본래 분봉 왕과 점령군 총독으로서의 원수인 관계가 이때만은 친구로 변한다. 마치 국제정치에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다.

빌라도의 범정은 오늘날 옛 성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 베데스다 연못을 통과하여 서쪽 언덕 길을 향하여 약 400m쯤 오르면 보인다. 큼직한 돌들이 바다에 깔려있는 이 길을 가노라면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 당시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선고교회(빌라도 범정)는 본래

지금의 기념교회 남쪽 앞에 있는 아랍초등학교에 있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곳에는 안토니오(Antonio) 요새라 불리는 예루살렘 수비대장의 집무실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였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 유대에 파견된 총독으로 AD 26-36년까지 통치하였고 그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0 km 가량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가이사라에서 집무하였고 유대인의 명절에만 반란의 기미 때문에 올라와서 머물곤 하였던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안토니오 요새는 아랍학교가 되었고 기독교회는 1903-1904년경 본래의 장소에서 길목 하나 건너편에 '그리스도의 감옥'이라고 불렀던 곳에 십자군 시대의 교회당 자리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였다. 이 교회는 가톨릭의 프란체스코 수도원이다. 이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교회가 채찍질 교회이고 가운데 있는 건물이 프란체스코 성경대학과 박물관이며, 왼쪽으로 들어간 곳에 선고교회가 있다.

바라바나 그리스도나

명절(당시는 유월절)에는 죄수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빌라도는 부인의 권고를 받고(마27:19) 예수님을 방면하려 하였으나 고소자들이 다같이 일어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니 빌라도는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마

27:24)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 나가고 고소자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마27:25)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저질렀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이 채찍질 교회이고 왼쪽이 선고교회이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음을 증명하는 돌비(원본은 터키 박물관에 있다)가 세워져 있다.

교회 밖에는 예수님 이후 비잔틴 시대의 성과 성벽의 모형을 만들어 놓아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자 10m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천주교회는 전면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조각해 놓았다. 문 옆에는 손을 씻는 조그만 돌 웅덩이가 있는데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교회 안 본당에서 남쪽 방향의 돌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면 돌바닥 위에 아이들이 장난한 것처럼 주사위놀이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빌라도 범정에서 재판관을 기다리던 군인들이 놀이 삼아 주사위놀이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것이다. 선고교회 옆에 정원은 AD 2세기 로마시 도로포장을 위해 사용하였던 커다란 바위로 된 반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석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관을 하기 위해 앉았다고 추정되는 자리에 놓여 있다.(요19:13)

잠시 이곳에서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있노라면 그날의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간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치욕과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으심으로 우린 영원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빌라도가 메시아를 죽이는 죄악에서 발을 빼는 모습에서 영악한 세상 정치인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막무가내 식 고발·고소에서 오늘날 교회의 부패한 모습과 교권주의자들의 과렴치한 모습들이 겹쳐보이는 것은 오직 필자 한 사람의만의 감정일까?

무식하고 무지한 강력법 바라바는 메시아가 대신 처형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만 살아났다고 기뻐 날뛰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라바를 바라보며 절없는 교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운이 있어서 살아난 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은 오늘날 믿음을 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예수님이 나 대신 사형선고를 받으셨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선고를 달게 받고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물넉 동산의 풍족함과 내일에 대한 비전은 오직 그날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은 사형선고의 선물이다. 선고교회에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해방과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서야 할 것이다. (계속)



선고교회 내의 창문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8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3월 22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네),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비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선한 영향력 가진 분들 존경, 패럴림픽 선수들 정말 멋져”

[인터뷰] 사랑·미담 가득... 패럴림픽 홍보대사 신현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가 오는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48개국 570명의 선수들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 6개 종목에서 240개의 메달을 두고 18일까지 10일간 경기에 임하게 된다.

패럴림픽대회 기간 동안 한국교회에의 응원 열기 또한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패럴림픽 홍보대사뿐 아니라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의 홍보를 자처하는 등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배우 신현준과 인터뷰를 했다.

현재 배우 신현준은 TV조선 ‘엄마의 봄날’, MBC에브리원 ‘시골경찰’ 등 ‘착한’ 프로그램 출연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가슴 따뜻한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자 배우 신현준은 “사실 신앙적 이유가 가장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통해 사랑을 하면서 감히, 아주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의 고통을 1억만분의 1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전할 때마다 배려심이 묻어났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언제는 이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처음 인터뷰 했던 내용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보게 됐어요. 아침 뉴스인데 얼마나 떨렸었어요. 마지막으로 앵커 분이 ‘식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이 뭐냐고 묻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몸이 불편한 이들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거 있죠. 저와의 약속이었었는데, 그걸 지킨 셈이죠.”

지난 2006년 배우 신현준은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서 주연 ‘기봉이’ 역할로 출연했다. 영화 속 기봉이는 신체 나이는 40살이지만 지능은 8살에 머문 장애인으로, 영화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신 동화라고 같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후 배우 신현준은 영화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 엄기봉 씨와 희망의 마라톤에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전국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장애인들과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마라톤 행사도 가면서 장애인 분들과 긴밀하고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그에게 2018 평창 동계 패

럴림픽대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신현준은 지난 1988년에 열린 서울 88올림픽 개막식의 감격을 몸소 체험한 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서울 88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잖아요? 88올림픽 때 개막식에 가서 봤어요. 그때 ‘굴렁쇠가 다른 데로 굴러가는 거 아닌가?’ 하고 제 일처럼 조마조마 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지켜봤죠. 모두가 우리 축제, 내 집에 많은 분들 오신 것처럼 느껴졌던 올림픽이었죠. 그 후 ‘평창’이라고 외쳤을 때 그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없어지는 걸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해요. 특히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올림픽 끝난 뒤 그 열기가 조금은 식었을 때 치러지는데, 종목이 많지 않고, 티켓 예매율도 낮아, 가격이 저렴해도 관객들이 별로 없어요. 이 선수들이 바라는 건 응원이에요. 그 큰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단 우리 국가대표뿐 아니라 경기하는 이들을 내 집에 온 손님이라 생각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렇게 말한 그는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또 좋은 영화 한 편을 보면 그 여운이 오래 가듯, 한국에 방문한 세계의 선수들을 잘 섬겨 미담이 넘치길 바란다 고 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듯, 세계의 선수들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따뜻한 정으로 경기가 끝나도 미담이 넘쳐나는 동계 패럴림픽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패럴림픽을 홍보하고 있어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를 홍보하는 중 배우 신현준은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를 접하게 됐다. 이 영화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홍보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패럴림픽 홍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제가 데뷔했던 영화 ‘장군의 아들’의 영화사 형님이 ‘우리는 썰매를 탄다’를 소개해 주



동계 패럴림픽과 그의 삶에 관해서 배우 신현준과 대화를 나누었다.

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 영화를 제자들(신현준은 현재 인태대 방송연예과 전임 교수다-편집자 주)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자들과 상담을 하면 어린 친구들이 ‘요즘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하거든요. 희망은 본인이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제자들 위해 영화 홍보를 시작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독수리 날개 치듯 새 힘을 얻고 ‘난 할 수 있어’ 이런 감정의 변화, 파이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를 한마디로 ‘희망’이라고 표현한 신현준은 벽차 오르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과 소감을 풀어나갔다.

“감독님이 가진 생각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어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주로 슬픔이 주제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희망이에요. 영화에 출연한 선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장애가 온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با이고 남편이고 우리의 이야기,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요. 굉장히 멋있어 보

였죠.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부끄러웠죠. 시지가 이렇게 온전한테 더 열심히 많은 일들 할 수 있는데, 게을렀던 점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또 옛날 읽었던 책이 떠올랐어요. ‘지신아 사랑해’라는 책인데, 셸터 시사회를 하고 개봉을 한다면 지신 씨가 패럴림픽의 이미지가 되어 주셔서 이 기사를 보고 꼭 응원하러 와 주셨으면 하는 소망도 있어요. 이 분들이 이렇게 빙판 위에 설 수 있는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힘들이 나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이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감동으로 눈물이 나는 다큐멘터리예요.”

신현준의 말처럼 영화에 출연한 선수들 중에는 선천적 장애보다 뜻하지 않게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선수들이 많았다. 그래서 신현준에게 만약 영화의 주인공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떨지를 묻자, 신현준은 ‘감사

를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전했다.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한부 인생, 암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엔 당황하고 ‘왜 이런 시련이 오지?’ 하다가 남들이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것을 느끼고 그 동안 느끼지 못한 감사를 알게 되요. 그 감사가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되면 신앙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시고, 더 깊어지고 그 동안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고, 이분들이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올림픽의 정도가 커요. 그분들이 고난을 겪고 일어섰기 때문이죠. 만약 제게도 그런 일이 닥친다면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고 뜻이고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겠죠. 처음엔 물론 힘들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연단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붙들고 많은 음성을 들었던 시기가 됐었기에... 인생에 힘든 시간과 행복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사랑을 심어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신 시간에는 소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무언가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의 차이는 있지만 다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선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비록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 알게 모르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기다림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 기다림 속에 무언가 이뤘을 때 더 많은 감사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은 제게 하는 이야기에요.”

신현준은 본격적으로 영화를 소개했다.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에 출연한 파라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곧 패럴림픽에 나오는 모든 선수라고 생각했으면 해요. 관람을 독려하면서, 영화를 보고 새 힘을 얻고, 패럴림픽 선수들을 응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관람을 독려한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는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선정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이자 부산국제영화제와 이드앵글 초청 작품으로, 장정 3년에 걸쳐 제작됐다.

짧은 시간 동안 활영할 수 있었음에도 ‘3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김경만 감독은 언론시사회에서 “100% 실제”라고 밝히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특별히 촬영 기간 중, 한국의 선수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대회에서 2위를 달성하는 기적의 사건도 일어났다. 이때 경기에 대한 스틸도 있지만 김경만 감독은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강조했다.

앞서 제자들을 위한 생각에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감독 김경만) 홍보를 시작했다는 배우 신현준도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1등’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가 제자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인물 중 하나는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이다. 오드리 헵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양실조에서 유니세프의 국제구호기금으로 생명을 건졌다. 이후 그녀는 스타로 데뷔했고, 암 투병 하던 생의 말년까지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소말리아를 찾았다.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죽을 때까지 봉사하지 않았나... 제게 최면을 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좋은 연기를 하는 배우보다 좋은 향기를 내는 배우가 더 멋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뿌듯한 것이 제자들에게 대해 물어보는데 ‘인성이 좋다’, ‘아주 신실하다’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신현준은 연기를 잘 하는 배우보다 ‘행복한 배우’, ‘작은 역할에도 감사하는 배우’를 말했다. 그런 그가 잊기까지 연기보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고, 이젠 신현준도 스승의 자리에 섰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게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의 경험상 연기를 가르쳐 주기보다 인생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교수가 될 때 ‘왜 교수가 되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는 오묘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러울 때가 있고, 저도 많이 무너지죠. 부부 싸움을 할 때면 ‘아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 왜 싸우고 있지?’ 하고,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감사하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의 스틸컷 ©태흥영화사

세계장애인대회, 장애인 인권영화,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를 비롯해 장애인과 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신현준은 최근 패럴림픽 선수들을 응원하며 니 부이치치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니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는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니 부이치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삶을 강요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의 옆에 있으므로 굉장히 편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배울 점이 많고, 힘이 되는 분들을 존경하는데, 이분은 그런 분 중 한 분이예요.”

이어 신현준은 시각장애인이자 흑인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스티

비 윈더(Stevie Wonder)와 아시아 최초 월드 스타로 불리는 성룡을 만나며 접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앞서 제자들과 패럴림픽 선수들을 언급할 때처럼 그의 눈은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시각으로 반짝였다.

비행기에서 만난 스티비 윈더는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현준에게 ‘영화보다 실물이 낫다’고 농담을 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성룡은 활영지를 쓰게 될 다음 후배를 위해 사람들이 다 나간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담배를 주었다.

“그 배려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다는 말이 나와요.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불만을 가졌다면 불행한 삶, 좋은 인상을 가진 아티스트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통해 감동을 받거나, 배우는 게 많아요. 작가 이지선 씨도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분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나요? 그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에, 편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신현준은 “부부지간에도 그렇듯,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부부지간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예요. 가장 사

랑하는 친구도 나랑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비추는 해바라기처럼.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한 편의 영화를 찍을 때 많은 스태프가 필요한 것처럼, 조연이 있고 조조연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분량을 모두가 해내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인정해 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예요.”

마지막으로 신현준은 “부산 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가 된 데에는 관계자들의 역할도 컸지만, 부산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패럴림픽도 전 국민이 자기 일처럼 나서고 미담이 넘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으니,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십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신현준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영화 ‘비천무’, ‘맨발의 기봉이’, ‘나쁜 놈은 죽는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 ‘카인과 아벨’, ‘바보엄마’ 등에서 주연으로 출연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모토로 영화사 ‘HJ. FILM(에이치제이 필름)’을 설립했다. 현재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전임교수, JTBC ‘TV정보쇼 오! 아시스’의 진행 등을 맡고 있으며 MBC 에브리원 ‘시골경찰’ 또한 출연 확정했다.

김신의 기자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홍보대사로 발 벗고 나선 배우 신현준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국민일보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 연재글을 모았다.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부딪히는 성도의 고민과 궁금증을 성경에서 답을 찾고 정통적 가치 안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러 물음에 관해 진솔한 답을 내놓는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문체는 공감을 자아낸다.

박종순 지음 344면 / 15,000원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맘몬이 지배하는 현실과 맘몬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닌 맘몬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경제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소명을 점검하고 코이노니아적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선교하는 미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운영에 관한 관점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강천 지음 288면 / 12,000원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중세교회사 I, II
정수영 목사의 교회사 시리즈

중세교회사 1권은 1000년 동안 유럽 세계를 암흑으로 이끌어 간 타락과 부패의 역사를 밝히려는 교황의 역사, 유럽교회의 역사, 주류교회와 다른 소수 교회 역사를 신약교회 사관에 의해 알아보고 교황들이 과연 신앙에 부합한 무리들이었는지 살펴보았다. 2권은 17세기 이전 유럽의 선교 역사, 동방정교회의 역사와 신앙, 중세기 수도회 운동, 십자군 전쟁, 중세기 미신 신앙, 스콜라 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암흑 속에서 개혁 추구, 분리 교회의 역사 내용을 다뤘다.

정수영 지음 1권 484면 / 23,000원 2권 920면 / 40,000원(신국판 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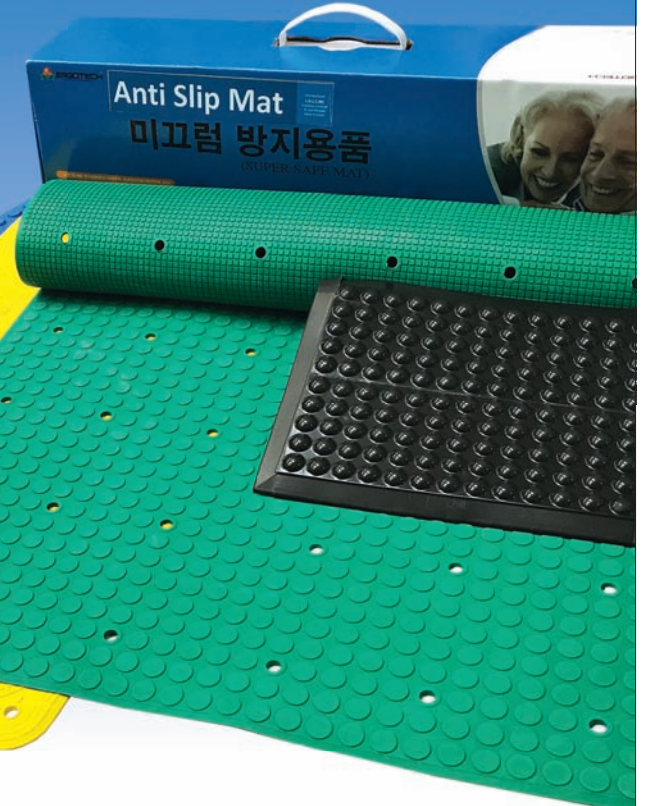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정길 6 ☎ 747-1004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Prevent Fatigue 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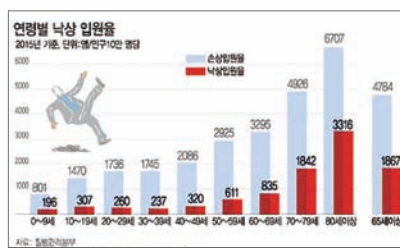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동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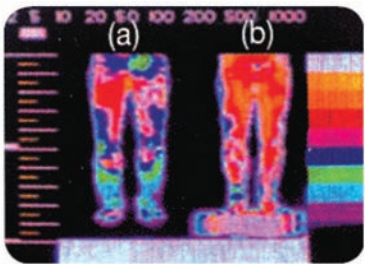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한인 혜택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러움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p>E- MAT</p> <p>피로방지용 사이즈 3ft + 2ft \$123 \$176 +tax 30% Off</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p>SAFE KOREA MAT</p> <p>케어프코리아매트 (Safe Korea Mat) 사이즈 80cm+40cm \$75 \$60 +tax</p>	<p>NEW SUPER SAFE MAT</p> <p>슈퍼케어프리매트 (Super Safe Mat) 사이즈 92cm+42cm \$90 \$72 +tax</p>
	<p>SAFE MAT</p> <p>사이즈 80cm+40cm \$95 \$76 +tax</p>	<p>SUPER SAFE MAT</p> <p>사이즈 3ft + 2ft \$145 \$116 +tax</p>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